

# 직장직능 연합대법회 10월 22일 연다

## 110개 신행회 대표 지도자 대회서 결의 법사 확보·연합회 결성등 활성화 모색

전국 직장 직능 신행단체 회원 1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직장 직능 불교신행단체 연합대법회'가 오는 10월 22일 일러 직장직능법회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수불교회, 국군불교총신도회를 비롯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금융단, 병원, 언론, 운전기사, 교사, 세무사 불자회 등 전국 110여개 직장 직능 신행단체 지도자 230명은 조계종 포교원이 8~9일 보은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개최한 '전국 직장 직능 불교신행단체 지도자 대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직장 직능 법회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한국전기기술자연합회, 금융단불교연합회, 국군불교총신도회의 활동사례발표가 있던 후 이어 벌어진 조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법당 및 법사 섭외 문제와 회원확보가 어렵다는 등 법회운영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이와 함께 동일직종 불자들의 연합회 결성을 통한 법사·법당 문제 해결, 직장내 잠재불자 발굴, 회원의 애경사를 적극적으로 챙겨 회원사조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 등 법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쏟아져 나왔다.

처음으로 재가자의 연수에 함께 참석한 15개 조계종 교구본사 포교국장 스님들도 제안들이 참신하며 공감을 표시하고 앞으로 교구본사가 앞장서서 지역의 직장 직능 법회를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지도자대회에서는 동일직종 불자 연합회 창립과 활성화에 대한 논의도 활발했다. 감사원, 보건복지부, 농림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별도의 모임을 갖고 10월 7, 8일 중앙부처 불자회 임원과 감사원 불자들이 월정사 성지순례를 가져 친목을 다진 뒤, 늦어도 연말까지는 공무원 불자연합회를 창립하기로 했다. 또한 철도



◇전국 직장 직능 단체 지도자들이 8일 보은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열린 '직장 직능 신행단체 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직장·직능 법회 활성화에 대한 토론을 했다.

철도 불자연합회도 오는 9월 23, 24일 직지사 에서 임원 수련회를 갖기로 했고 여성불자들도 상경례를 가졌다. 이같은 움직임은 직장직능불자 연합회 결성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날 펼쳐진 회향식에서 참석자들은 일터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성실한 직업인으로서 자신의 직분 다하기, 신행단체간의 교류 활성화, 복지 환경보호 등 다양한 실천운동 전개

를 결의했다.

이번 지도자대회는 무엇보다 전국의 직장 직능 신행단체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데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회 운영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안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직장 직능 법회는 그동안 침체를 벗고 기지개를 켤 것으로 보인다.

김두식 기자(dooobi@buddhapia.com)

### 일터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



이 호 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총무과장)

"삼구부리 화하종생". 불교사회복지를 접하면서 개인적으로 항상 마음속에 새겨두는 글이기도 하려니와 불교사회복지 관련 논문을 보면 항상 자주 사용되는 문장이기도 하다.

사회복지의 한 단면을 보면 외형상으로는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이지만 이념상으로는 잘 나거나, 못나거나, 부자든 가난하던 구별 없이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다. 모든 일이(下心)을 가져야만 올바른 도리를 펼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남 위에 군림하고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선심을 쓴다는 생각으로 복지 활동을 한다면 이것은 공덕을 쌓는 일이라기보다는 자신과 부처님을 속이는 일이다.

사회복지 수혜자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함께 가져야 한다. 복지는 노력도 아니고 국가나 민간단체 또는 주

봉사하는 사람이든 몸이 자기시간을 쪼개어 열심히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를 볼 때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가를 깨닫곤 한다. 불교가 명맥을 잇는 것도, 부처님 법이 위대한 것도 그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가슴 뿌듯함을 억누를 수 없다.

이들의 원활한 봉사활동을 돕고



불교복지의 극히 일부분을 맡아 사무실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하는 일은 이들의 회생과 봉사에 비하면 그저 작은

### "복지사업은 하심이 바탕"

번 친척이나 가족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인이한 마음이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며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진 많은 불자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 개인에 대한 외면도 큰일이려니와 불교사회복지에 대한 참여의지마저도 없어진다면 이보다 더한 예보가 어디 있겠는가!

요즘 불교계 여기저기서 사회복지관을 수탁 운영해야 한다. 어린이집을 운영해서 어린이포교에 나서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실질적인 실천방법까지 제시하며 불교복지를 하겠다는 사람이 많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불교사회복지에 참여하자는 담부성과 외형만 가지고는 불교사회복지의 참뜻을 이룰 수는 없다.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회복지에 대한 철학, 이념, 전문적인 기술, 행정능력 등이 뒤따라 주어야 하고 전문화된 불교사회복지 토대 위에 복지사업의 자원봉사 활동과 후원이 결집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불교복지라 말할 수 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남을 위해

날알에 불과함을 느낀다. 이곳에서 일한 지가 벌써 5년째지만 내 자신이 작게 느껴지는 것도 이런 이유다.

불교계에 불교사회복지를 정착시키기 위해 참 많은 일을 해 왔다는 자부심도 있지만 앞으로 많은 일을 해 나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느껴지는 것은 아직 할 일이 많기도 하지만, 이런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이다.

불교복지는 희망이 있다. 이런 많은 불자들이 나서고 있는데 안 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가끔 개인의 입신을 위해, 외형적으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복지사업을 하겠다는 스님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불교사회복지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모두가 하나된 마음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당신이 이만큼 해주면 나도 이만큼 해 주겠다"는 식의 계산된 논리는 중생구제의 대의를 펼칠 수 없기에 나는 가끔 절에 가서 부처님께 예배하며 하심을 배우고 있다.

### 16대 한나라당 불자회 가동

회장 김태호의원



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불자회가 창립됐다.

한나라당 불자회회원의 26명은 14일 여의도 외곽에서 이희창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불자회'를 창립하고 김태호(65 울산중구·사진)의원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한 나라당 불자회는 앞으로 불교계 지도자 간담회, 불교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불교관련 법령 개정 등 불교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태호 신임회장은 "정기법회, 성지순례 등을 통해 회원들의 신심을 키우고 불교계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울산 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태호 의원은 인천시장, 대통령경무수석, 경기도지사, 내무부장관을 역임했고 12, 13, 15대에 이어 현재 16대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두식 기자

### 우리 모임에선

#### 경희의료원불자회 음악회

경희의료원 불자회(회장 황보추)는 13일 분관 현관에서 대한 불자기수회와 공동으로 '경희의료원 환자를 위한 음악회'를 개최했다.

남강수, 머무와 다래, 명국환 등 불자기수들이 출연한 이번 음악회는 경희의료원 환자와 가족 400명이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중앙구청불자회 법회사 순례

중앙구청 불자회(회장 서관수)가 창립 1주년을 맞아 9일 강원도 영월 사자산 법회사와 영월암에서 함께 순례를 참배하는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이번 성지순례에는 직원불자와 가족 등 5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지난해 6월 1일 창립한 중앙

구청 불자회는 그동안 관내 사찰순례법회, 성지순례를 하며 신심을 키워왔다.

#### 법륜교수회 월정사 수련회

법륜교수회(회장 신준식)는 16, 17일 이틀간 오대산 월정사에서 하계 수련대회를 가졌다. 월정사 주지 현해스님 법문, 상원사 및 산내암자 순례, 티베트 불교에 대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수련대회는 40여명의 교수불자들이 참석해 그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았다.

#### 불교스카우트·수련대회

전국불교스카우트지도자대회(회장 권영일)는 오는 28일부터 2박 3일간 경기도 이천 설봉산 영월암에서 하계 수련대회를 갖는다. 참가신청서는 우편이나 FAX로 22일까지 받으며 회비는 3만원이다. 문의전화 (02)2292-8502 최병수

### 클릭! 새 웹 페이지

- 한국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 (<http://youthic.simin.org>) - 7월 4일 오픈한 청소년 인턴지부 홈페이지, 청소년 리더 등 인천지부의 활동사항을 알목요연하게 소개하고 있다.
- 백골넷 (<http://108.net>) - 무료 불교메일 서비스, 불교 디렉토리 및 사이트 소개를 주로 하는 사이트. 현재 개설되어 있는 BBS 외에 커뮤니티, 쇼핑몰, 방송국, 대화방, 불교정보 등의 정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 석학회 (<http://cafe.daum.net/giringuy>) - 6월 12일 개설. 석학사 학생회 홈.
- 소림불교학살 (<http://cafe.daum.net/sorim>) - 6월 16일 개설. 소림불교학살 출신 동문·재학생 모임터.



◇불자교정인들이 8일 강남 봉은사에서 간부수련회를 갖고 재소자 교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임정에 들어 있다.

### "빼뜰어진 마음 바로잡기 최선"

#### 교정인불자련 간부수련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회장 오희창)는 제4회 간부하계수련회를 8~9일 양일간 서울 봉은사에서 갖고 재소자 교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전국 4개지부 41개 지회소속 220여명이 참석한 이날 수련회는 입제식을 비롯해 이상헌 동국대 교수와 박완일 씨의 특강, 지회소

개 및 신행사례 발표, 발우공양, 참선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봉은사 주지 원해스님은 환영사에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사람을 바로잡아 새사람으로 만드는 일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라며 "교정인들이 재소자의 등불이 되어 앞으로 그들의 교화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두식 기자

### 서울시청 불심회 화계사서 수계법회



서울시청 불심회(회장 이정관)는 8, 9일 이틀에 걸쳐 서울 화계사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108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불자들은 화계사 주지 성광스님의 법문과 승산스님의 "나는 무엇인가"라는 주제 강의를 들었고, 1080

배 철야정진을 하며 신심을 다졌다. 총무 강병우씨는 "수계법회는 자심을 돌아보는 계기"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두식 기자

###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 동산불교대학 2000년도 신입생 모집

####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들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불교학과, 불교복합학과)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7기생을 모집함.

####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근본불교·대승불교·비교종교론·불교성당론·인도불교사·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유사상·경도사상·북한불교사	무진정스님(본대학장)·최봉수(동국대교수)·박종현(동국대교수)·정병조(동국대교수) 오국근(동국대교수)·박홍(동산불교대교수)·남수영(동국대교수)·계환스님(동국대교수) 김상현(동국대교수)·표주스님(동국대교수)·장휘욱(동국대교수)
2년 교과목	반야사상·법화사상·화엄사상·불교사회복지론·불교학개론·선종사상·불교미술·밀교사상·포교방법론·북한불교포교론	박종(동산불교대교수)·김성철(동국대교수)·권만준(동국대교수)·보각스님(승가대교수) 권기홍(동국대교수)·최홍식(동국대교수)·윤영수(문화재단전문위원)·종석스님(승가대교수) 한정성(금강산원사장)·김조커(동국대교수)·유진스님(동국대교수)

####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장규반(100명) 주간반(50명) 통산반(50명) 불교복합학과(20명)	불교를 적극 신행 하고자 하는자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영합관사지 3매	2000년 6월 15일~ 2000년 7월 31일 입학료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장규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동산교육회관	통산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업이 어려운 자만 지원가능

#### 4. 입학일시 2000년 8월 5일(토) 오후 5시 (동산불교회관)

####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 ☎ 732-1206-8, FAX 732-1207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 02)733-0333
  - 부산 : 불서보급사 ☎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점 ☎ 053)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 062)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 064)55-2203
- \* 특전사항 : ○ 상과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 불교복합학과 지방생은 북한불교사, 북한포교방법론을 이수하여 함.

## 대산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

###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 향비

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항약음식의 성분이 신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어미의 땀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 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생리통·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풍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풍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 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풍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풍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해도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의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짙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깨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풍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영희)

#### 깨닫는 증상(○) 미심시요.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때 땀이 많이 났다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심이 켜 편이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바짝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 18 당뇨나 감성성으로 고통을 받는다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